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

교육의창

하정호
광주교육시민협치진
흥원 과장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는 말은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을 읽으며 처음 보았다.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하고 여태 이 말뜻을 생각해 왔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글을 다시 읽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바를 깨뜨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뜻이었다. “공부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인식들을 망치로 깨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이다.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완고한 내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하, 그렇지’ 하는 놀라움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마음 열림도 없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인식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신영복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불러내는 것”이 공부라 하셨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가르침을 ‘아하, 그게 이 뜻이었구나’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머리에서 가슴까

지의 긴 여행도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비대칭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신다.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의 ‘깨우침’이 없으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의 담장 안에서, 교과서에 적혀 있는 지식을 주입해서는 깨달음이 일어나기 어렵다. 썩어문드러진 세상과 담을 쌓은 채 혁명정신을 주입하고 다시 군대로, 일터로, 전장으로 학생들을 내보내기에 그런 학교가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학교는 이제 탈레반(이슬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개별화 교육을 말하는 오늘이다. 하지만 그 인공지능도 학생들 각각에게 맞춤형 지식을 알려줄 수 있을 뿐,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에는 가슴,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인공지능이 결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그 여행은 교사와 학생이 친구가 돼, 배운 지식을 삶 속에서 찾아가며 함께 떠나는 기나긴 여정이다.

‘OECD 교육 2030’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습 나침반’을 쥐어줘야 한다고 했다. ‘좋은 삶(웰빙)’을 이루겠다는 모호한 목표를 향해서 교사와 학부모, 또래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학습 나침반’을 들고 여행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이다. 이는 ‘마음과 학습(Engaging Mind)’에서 브렌트 데이비스 등이 한 말과 맥이 같다. “가르치는 일은 주어진 지식을 주입해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역사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새로운 연결방식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한다.

그동안 혁신학교에서는 삶과 삶의 일치를 꿈꾸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오히려 삶과 삶의 불일치가 우리 삶의 조건이고 배움, 즉 깨우침과 깨달음의 시작점이다. 자신이 배운 것과 삶이 꼭 같지는 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학생들이 그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다시 일치시키겠다는 용기를 지닐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된다. 확장학습은 삶과 삶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일어난다.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려면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웃과 더 많이 소통해야 하고, 더 많이 싸워야 하고, 더 많이 포용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들이 깨어지고 삶의 전환과 삶의 전환인, 전환학습이 이뤄진다. 이제는 교사들에게도 지식 전수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생을 연결하는 매개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역할도 가르침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삶과 삶을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몇몇 마음 맞는 교사들끼리 교육과정을 다르게 구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꾸어갈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혁신학교를 넘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의 자치가 더 확대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변화와 창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9일(현지시각)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통신 중단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돼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이 터미널을 가득 메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결함으로 전 세계 공항, 병원, 호텔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IT대란이 발생했다. 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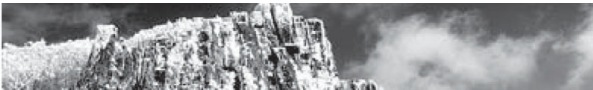
서석대

“일본어를 못 해도 이주할 수 있을까요?”

이달 초, 지방소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홋카이도로 향해 지방소멸 극복에 성공한 니세코와 히가시카와정을 방문했다. 두 마을 다 각자의 특색이 있었으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다름아닌 히가시카와정이었다.

옛 초등학교를 활용한 외국인 공립 일본어 학교와 이어져 마을 사람들의 도서관이자 카페, 쉼터이자 마을회관으로 이어지는 센토피아2와 그 앞으로 조성된 잔디밭에서 축구하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자 나도 모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취재를 위한 안내를 도와준 이도 일본 문부성을 통한 청년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히가시카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남 창원 출신 신경숙(26)씨였다.

‘사진 마을’ 브랜딩으로 고향주주세,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정책과 행정을 기반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히가시카와지만, 이 지역을 둘러보며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이들의 목표가 ‘지방소멸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히가시카와정의 행정은 마을이 없어져간다는 위기의식보다는 지금 마을에 거



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데 더 치중돼 있었다.

올해 3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는 각 나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쓰이는 인간개발지수(HDI)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전년대비 한 단계 오른 19위를 차지했으나,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52위를 기록했다. 지방소멸은 문화,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삶의 척도를 하락시키며 최중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만큼 극복해야 할 주요 현안 중 하나다. 그러나 ‘인구 수, 관계인구 확대 등 물리적인 숫자 증가만을 위한 지원은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살기 좋은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다양한 정책도,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보는 것은 아닐까.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오지현 취재1부 기자

전공의 복귀 유도할 특단 대책 시급하다

의정갈등 고착화 더 이상 안돼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 속에 광주 지역 주요 병원들이 진퇴양난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잠정 연기하고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 정원을 확정·제출했지만 전방은 밝지 않다.

정부는 22일부터 각 수련 병원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신청한 올 하반기 전공의 정원에 따라 모집 절차에 나선다. 이달 말까지 모집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각 수련 병원 단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최종 합격하면 하반기 수련 일정이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전남 대병원은 전공의 231명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채 수련평가위에 올 하반기 모집 정원으로 레지던트 28명만 신청했다. 조선대병원 역시 임용을 포기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00여 명의 사직서 처리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은 인턴 36명·레지던트 4명으로 확정, 수련평가위에 제출한 상태다. 광주기독병원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 19명 중 4명

만 사직 처리했다. 수련평가위에는 하반기 모집 전공의 정원으로 4명을 신청했다.

이들 병원들은 이탈 전공의의 사직 처리는 그대로 둔 채, 정원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의대 증원 반발이 장기화에 내놓은 교육책으로 풀이된다. 병원들이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은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다.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이 지속된다면 신규 충원도 전방이 밝지 않다. 결국 이탈 전공의의 복귀 설득에 매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병원 일각에서는 불확실한 복귀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하반기 모집까지 줄인 상황에서 충원이 안 된다면 병원 과부하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정갈등은 이미 해결책 없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6개월째 일선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라는 희망 고문만 하고 있으니 의료 체계 붕괴는 시간문제나 다름없다.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효율적 공영제’ 他 지자체도 교훈 삼아야

신안 버스공영제 성공적 안착

신안군이 추진해 온 버스공영제가 연간 1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준공영제나 민영제와 달리 버스공영제는 주민의 교통복지와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도맡아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익과 효율만을 앞세운 민영화와 신자유주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이동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신안군의 도전이 반가운 일이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로 16년째를 맞는 버스공영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1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공영제 시행 이후 경제적 유발효과도 233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의 민영제나 준공영제에 비해서도 효율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지난 2023년 기준, 신안군의 버스 한 대당 지원액은 7200만 원인데 반해, 민영제를 실시하는 목포시는 대당 약 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준공영제를 하는 광주시의 대당 1억 3700

만 원에 비해서도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제는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반면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준공영제나 민간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민영제는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 당장 민영제나 준공영제에 비해 공영제를 실시한 신안의 연간 지원 금액이 훨씬 낫다는 것은 농어촌에서 효율적인 공영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고령화시대 보편적 사회 서비스는 지역민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다. 지자체가 공영제를 통해 지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겠다는 것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가야 할 길이다. 낙도와 오지 등이 많고 고령화가 심화한 전남의 경우 주민의 이동권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지역소멸의 위기, 전남의 모든 농·어촌이 이번 신안군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길 기대한다. 공영제를 통한 교통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은 ‘복지 전남’의 미래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